



“상처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 치유하는 힘은 나눔과 배려죠”

‘우리들의 할머니’로 제11회 광일문학상 수상 동화작가 안영옥

“작가는 작품으로 말해 동화 꾸준히 써 보답할게요”

“수상작 선정 소식에 한동안 어떨떨했습니다. 너무 놀라 전화를 땅에 떨어뜨릴 뻔 했어요.” 제11회 광일문학상에 선정된 안영옥 동화작가는 “문학상 수상은 남의 일로만 여겼는데 이런 기회가 올 지 몰랐다”며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듯이 꾸준히 동화를 써서 상에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수상작인 ‘우리들의 할머니’는 불우한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동화로, 소설적 리얼리티에 환상적 효과를 가미했다. 작품은 이 시대의 노인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오늘의 다양한 문제를 다각도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최종 심사를 맡은 소설가 채희운 광주여대 교수와 동화작가 윤삼현 광주교대 겸임교수는 “다소 호흡이 긴 서사적 전개에서 작가 특유의 입담을 엿볼 수 있다”며 “할머니의 백색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작품의 주제와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의 오브제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화로서의 예술성을 신뢰케 한다”고 평했다.

순천 출신인 안 작가(57)는 한국방송통신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으며 ‘뚝뚝뚝, 동화가 놀러왔어요’ 등을 펴냈다. 안 작가는 이전까지는 단편을 써오다가 처음 중편을 쓴 작품이 광일문학상에 선정되었다. 그녀는 수상작 ‘우리들의 할머니’를 통해 날로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각박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한다. 할머니 한 분의 일화를 매개로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동화 속의 아이들은 할머니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돌

봐줘야 할 대상입니다. 할머니의 묵묵함 속에서 배어나오는 따스함은 아이들에게는 꿈이자 희망이었던 거지요. 할머니의 가슴 한편에는 어린 시절 겪었던 부모의 부재가 적잖은 상처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니다. 할머니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은 다름 아닌 나눔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안 작가는 ‘나눔’은 치유이자 희망이라고 강조한다. 오늘의 많은 문제 역시 나눔과 배려가 있다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작가가 동화를 쓰게 된 계기는 방송통신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지역의 작은 신문사에서 객원기자로 일하면서다. 필력을 알아본 사람들이 동화를 써보라고 권유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 동화를 쓰게 되었다.

물론 문학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이보다 훨씬 전이다. 고등학교 시절 문예창작반 활동을 하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다. 그녀는 “한때는 100권이 넘는 동화책을 빌려다 읽을 만큼 문학에 심취해 있었다”면서 “문학이라는 분야, 특히 동화 장르를 끝이 없는 미지의 영역인 것 같다”고 말한다.

초등학교 눈송이 강사를 하면서 꾸준히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 작가는 전국환경동화공모전 입상을 비롯 우수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광주문인협회 ‘광주문학’ 편집장을 맡아 지역 문학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안 작가는 현재 장편 동화를 구상하고 있다. 판타지 기법과 동화적인 장치를 결합해 새로운 양식의 동화를 쓰고자 한다. 앞으로는 동화도 도전정신이 없으면 독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생활동화나 생태동화를 쓰고 싶어요. 요즘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비롯해 인간과 생태계의 공생관계를 다룬 작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을 쓰는 경쾌하고 밝은, 그러면서 서정적인 시적이 담긴 동화를 쓸 계획입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최근 광주문화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단체인 아트주가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에서 진행한 ‘입주작가 멘토링’.

양림동 선교사 건물 창작공간 조성 ‘아트주’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 부문 최우수상

광주의 근대 역사문화마을인 양림동 선교사 건물을 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한 ‘아트주’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18일 대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2015성과공유 전국위크숍에서 광주문화재단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단체인 아트주(대표 정현기)의 ‘호랑가시나무 창작소’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트주는 20세기 초 광주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림동의 선교사

사택에 작가 상주형 예술창작공간인 호랑가시나무 창작소를 조성했다.

윤남웅(서양화), 천영록(서양화 및 한지공예), 서범현(서양화), 프로젝트 그룹 모치타(패션), 윤태식(뮤지컬 감독), 해외 작가 클라우디아 페스타나(작가-큐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입주해 창작활동을 펼쳐왔다.

100여년 전 미국인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일본인, 한국인이 함께 어우러졌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양림동 스토리’를 예술로 승화시킨 특성화 전략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창립 5주년 기념행사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서 ... ‘1825+’ 등 프로그램 다채

광주문화재단이 재단 창립 5주년(2016년 1월 13일)을 앞두고 22일 오후 4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문화재단 5년, 문화보듬 1년’ 행사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간스토리 두임’, ‘1825+’, ‘미리보시유’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공공예술 청년작가 공모전 ‘공간스토리 두임’은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 5인(팀)이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 5곳에 설치한 공공예술작품으로, 오는 2016년 1월 18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재단 5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창립 5주년 성과보고회 ‘1825+’는 2016년 1월 18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825일 동안 진행된 재단의 주요사업과 성과물을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 문화예술지원, 문화교육, 문화복지,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인력 양성, 각종 행사와 축제

까지 재단 사업의 주요 성과와 앞날 내용을 보여주는 사진·영상, 발간 책자, 홍보물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선보인다.

광주문화재단 기념 마련 문화장터를 위해 시민, 예술인, 명사 41명이 위탁한 애장품 46종 186점을 미리 선보이는 사전전시 ‘미리보시유’는 오는 2016년 1월 12일까지 1층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윤장현 시장을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 조영표 광주시의회의장,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조현중 국립박물관장, 우제길 화백, 문순태 작가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위탁한 서양화, 수묵화, 판화, 서예, 스텝, 책자 등의 사진과 작품에 얽힌 소중한 사연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엔 선보이는 문화예술품들은 마지막날인 오는 2016년 1월 12일 오후 4시 문화장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판매될 계획이다. 문의 062-670-7432.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동화작가 안영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뚝뚝뚝, 동화가 놀러왔어요’ 등 펴내 광주문인협회 ‘광주문학’ 편집장 활동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안수자씨 ‘느티나무 괴물들’ 펴내

광주일보 신춘문예(2011년) 출신 동화작가 안수자씨가 ‘느티나무 괴물들’을 펴냈다.

‘푸른사상 동화선’의 다섯 번째 도서로 간행된 이번 책은 이기적인 인간 때문에 살 곳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동화는 까칠하지만 속마음은 무진장 착한 수다쟁이 딱따구리, 반항아 족제비, 귀하신 몸 담비, 이기적인 깡쟁이 고양이 느티나무 할아버지 품속에서 부딪치는 이야기가 기본 줄거리다. 이들은 사소한 일들로 좌충우돌하지만 결국은 화해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안 작가는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고,



이야기, 인간을 바라보는 동물들의 시선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 출신인 안 작가는 장편동화집 ‘우주나무 정거장’을 펴냈으며 2013년 ‘뿌사리’로 한국 안데르센문학상을, 2015년 ‘우주나무 정거장’으로 MBC 창작동화대상을 받았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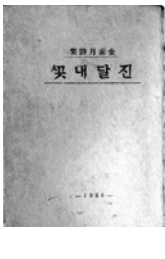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초판본 1억3500만원에 낙찰

김소월(1902~1934)이 생전엔 낸 유일한 시집인 ‘진달래꽃’ 초판본이 1억3500만원에 낙찰됐다. 한국 현대문학작품 사상 최고가다.

지난 19일 경매사 ‘화봉’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고전문화중심에서 열린 제35회 화봉현장경매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초판본이 시가가 9000만원에서 경매를 시작해 1억3500만원에 팔렸다.

이 작품 이전에 국내 현대문학 작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책은 지난해 11월 19일 팔린 백석의 시집 ‘사슴’으로, 당시 70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진달래꽃’은 1925년 12월 26일 매문사



에서 간행한 시집으로, 책 제목과 같은 시 ‘진달래꽃’을 비롯해 ‘먼 후일’, ‘산유화’, ‘엄마야 누나야’, ‘조혼’ 등 작품 127편이 16부로 나뉘어 수록

돼 있다. ‘진달래꽃’은 총판매소에 따라 중앙서림 출판본과 한성도서주식회사 출판본으로 나뉘는데 이 책은 중앙서림 출판본이다. 현재 이 책과 같은 중앙서림 출판본 1책과 한성도서주식회사 출판본 3책 등 모두 4책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서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 매입, 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